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레지나) (614-855-2167)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연중 제4주일 (설 합동위령미사) February 3, 2008

본당 소식

- ◆ 본당 신부님께서 부친상으로 한국에 계십니다. 세상을 떠나신 김일량 마태오 형제님과 신부님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 오늘 주일미사는 **설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합니다.
- ◆ **2008 교무금 책정 및 납부 안내**
 -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고, 신앙인으로서 의무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서에 기입하셔서 재정위원장 김 세실리아 자매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년 Tax Report 를 위한 **현금 증명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무위원장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오늘부터 **주일학교** 개학합니다. 학부모님과 교우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 ◆ **사순 기간 2 차헌금**
 빈첸시오회 기금마련과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사순 2주일, 사순 5주일 미사 중 2차헌금을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미사전 나눠드리는 **성가책**과 **봉헌봉투**가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가대**에서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박영주 마리아 단장 (614-315-859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2월 **꾸리아 모임**이 미사 후 있습니다. 각 뽀레시디움 임원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 일시: 2월 3일 오후 2:45
 - 장소: Parish Center
- ◆ **재의 수요일** 예식 안내
 - 2월 10일 주일미사 중 재의 예식이 거행됩니다.
- ◆ **이호영 구역 모임**
 - 일시: 2월 9일 토요일 저녁 6:00
 - 장소: 박석현 알비노 형제님 댁
- ◆ **친교 봉사자**
 - 2월 3일: 성모회
 - 2월 10일: 김정일
- ◆ 이번 달부터 **친교 후 뒷정리**를 구역별로 맡습니다. 2월 책임구역은 김제준 구역입니다.



<최후의 심판 (부분)>

프라 안젤리코 (1395-1455), 템페라, 산마르코 미술관, 피렌체, 이탈리아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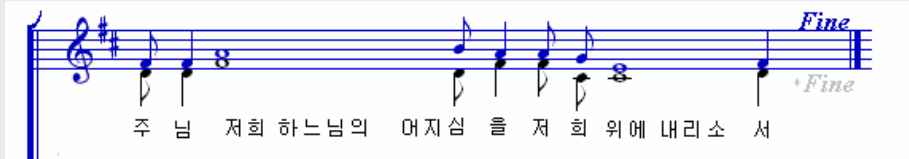
주 일 헌 금	\$668.00
교 무 금	\$1,620.00
감 사 헌 금	\$100.00
BAA	\$100.00

- **교 무 금:** 이영수 최일성 이건영 이제오 서경환 박석현 최준표 해주영 연도흙 신현태
- **감사 헌금:** 이민욱
- **BAA:** 최준표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민수기 6,22-27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답송 ◎ 주님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 2 독서 야고보서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나날이 주님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35-40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60단 1명	1,180단 10명
이호영	150단 2명	6,660단 5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180단 2명	3,945단 41명
김효임	단 명	1046단 27명
유대철	단 명	단 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390단 5명	2/22/04-1/27/08 (205주)

☞ 총누계: 192,715단 12,617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2월 3일	2월 10일
해설자	고상식	김오경
독서/봉헌	최규선 김원영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416 ♫ 봉헌: 215
 ♫ 성체: 154 159 ♫ 파견: 14

종에게 시종드는 주인

구요비 읍 신부 가톨릭대학교 교수

여러 문화와 종교가 보아 온 노동관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노동을 경시하여 노예들의 몫으로 돌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교 문화만은 창세기로부터 일관되게 ‘인간은 노동으로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하도록 불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노동자로서 육체 노동을 하셔서 이제 인간은 일로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도록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소년 예수님이 목수이신 아버지 요셉을 옆에서 도와 드리는 모습, 사고로 손가락을 다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애통해하시는 성모 마리아가 그려진 성화들은 ‘노동하는 인간’인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요한 5,17).

오늘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깨어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일하거나 엄격한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 늦게까지 깨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커다란 기쁨과 보람이 있기에 불철주야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은 여러 문화 안에서 살아온 노예의 비참한 운명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에게 ‘종’이라는 칭호는 굴욕이나 자유의 박탈, 명예의 실추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종을 들 것입니다”(루카 12,37)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시종드는 초유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종이 주인을 영예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인이 종을 영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몸소 당신 종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맡기시며, 이 종은 자신이 창조주이신 주님께 온전히 속함을 잘 알기에 순종으로 자신을 실현하고 완성해 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파견되시는 주님의 종이십니다(마태 12,17-21).

예수님은 하느님이지만 종이 되셔서(필리 2,6-8) 노예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주인인 당신의 처지로 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의 인간의 처지가 어떨든 상관 없이 이제 모든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섬김을 받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가 부여받은 ‘새로운 인간’의 신분입니다.

이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간의 선용(善用)입니다. “저희의 날 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시편 90,12).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이 시간은 늘 구원으로 초대되는 때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지 우리의 수명이 계속 더 연장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매순간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께 다가가도록 응답할 때 영원한 생명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기에 말입니다.